

건축사의 소명과 업무분장

The Given ethics of an Architect and his Scope of Work

이호진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Lee Ho-Chin

건축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사회)이 아는가? 이러한 질문을 이 사회를 향해서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참 뜻은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이나 건축사의 설계비에 대한 대우가 기대 이하로 전락되어 가서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는 보잘 것 없는 직업인으로 추락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타인(他人)으로부터의 인정 정도와 위상이 최악으로 전락되어 감에 따라 우리 자신의 자아 판단에도 자학의 길로 들어가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다 버리고 클라이언트(Client)와의 관계도 더 지속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끼리도 일의 수주를 두고 마치 조그만 고기 덩이를 두고 서로 물고 뜯는 짐승과 같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원인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건축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건축인들이 건축의 목적에 맞게 건축사의 소명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위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을 가장 짧은 언어로 그 의미를 규정한다면, 건축이란 「신이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한 이 땅과 환경 위에 인간에 맞게, 인간을 위한 환경을 갖게 하며, 먼 훗날까지의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며, 보존하여 먼 후손에게 태초의 자연환경」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

어느 대지(垓地) 위에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과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자연에서 하나의 패턴(pattern)으로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건축사이기도 하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순리에 조화되는 가능성과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친 환경적 건축물을 설계하는 목적과 방법과 결과로 가능케 하게하는 소명을 건축사는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 마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음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신이 인간에 주신 소명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유지하라」는 것은 특히, 건축사들에게 그 많은 부분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이 이러한 엄청난 신(神)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회가 알진데 얼마나 그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건축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게 하는 갖은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이익적인 수단으로 건축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성공적으로 성취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얼마나 주변의 자연과 에너지를 낭비시켜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분석,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건축인의 소명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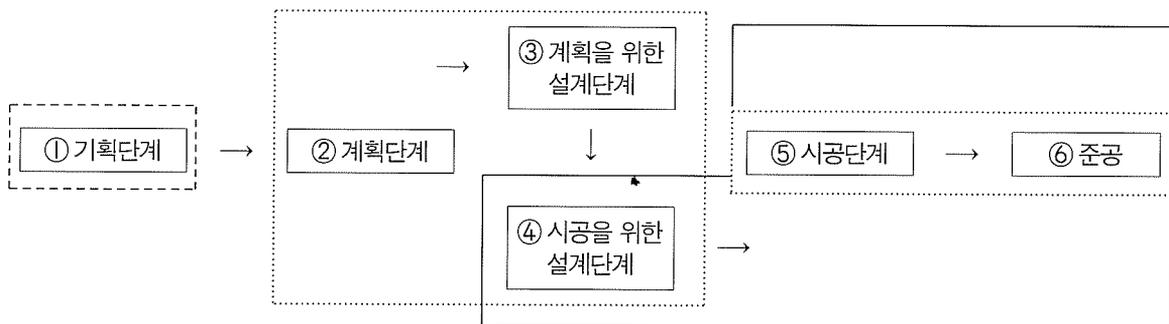
우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인간과 자연 섭리와 생태와 아름다움과 과학을 더 배우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므로 우리 건축의 참다운 일과 영역과 소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상사람 누구도 건축인이 될 수 있는 알은 영역과 전문성에서 벗어나 정말 깊고 고도의 지식과 실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 우리의 위상을 높게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는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작업 과정과 결과물인 것이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나 넓은 과정과 결과물에서 건축사들의 업무 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이 작업의 확보성과 정확성과 경제성을 찾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본다.

위의 건축사의 원칙적인 소명을 내포한 아이디어를 성취하여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의 업무한계가 건축사와 시공자 사이의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건축사의 업무가 시공자의 업무까지 넘어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



① 부분은 건축주 측에서 기획하여 그 결과를 건축사에게 분장하여 ②, ③을 실시하게 하며, 이를 시공자에게 ④, ⑤, ⑥의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로 본다면 건축사의 업무가 ①, ②, ③, ④, ⑥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 처하여 있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작업과정과 책임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막중한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소명의 이행과 확실성, 정확성, 경제성, 책임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사의 업무 분장이 확실히 구획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②, ③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인들이 합심하여 기준과 법과 책임소재를 갖게 하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서 ②의 업무한계는 아이디어 스케치(Idea Sketch)가 될 것이며, ③의 업무한계는 ②를 시공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도면으로 설계되어짐을 의미한다.

즉, 정확한 평면, 입면(주단면도(내,외)), 실내외의 마감도, 창호 입면도, 구조 평면도, 단면도(라멘도), 전기 설비의 계통도와 평면도 등의 시공도 작성을 위한 지침을 부여하는 정도에서 그 업무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도서의 양도 지금의 1/10 정도로 간추려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종 시공 상세를 다 포함시킴으로써 (④까지) 시공성과 현장성에 맞지 않는 책임과 불확실성의 시공 상세도 작성은 낭비와 불신을 초래하여 결국은 책임 소관과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불화가 도출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평면도와 단면도 보다는 더 확실한 치수와 마감, 아이디어 표현의 시방 등이 그 속에 자세히 명시되고, 필요하면 부분 확대 평면도를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많은 도면이 필요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②의 단계를 건축사의 소명에 따른 질 높은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④의 진행과 결과를 반드시 설계자의 인증을 받는 과정을 두어 ③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타났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가 작성한 ④의 도면은 건축사보다 확실성과 책임성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건축사의 업무 분장은 건축사만의 고유한 전문 업무만을 가지므로 명확하고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든 건축사가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 건축사들이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IMF 이후 어려운 건축계의 진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가시는가 했더니 그때보다 더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명과 건축사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므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의 위상과 권위와 보람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